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종윤

Rev.

Lee Jong-Yun, Ph. D., D.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ichi-dong Kangnam-gu Seoul, Korea

Tel. 558-1106.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주가 쓰시겠다 하라"

(Tell him that the Lord needs them)

#### ■ 마태복음 21장 1-11절

오늘 본문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감람산 냇바게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만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21:3절)고 말씀하셨습니다.

#### I. 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10절)

①베들레헴이 소동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예수님 깨달음 소동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는 왕, 개선장군, 성공자나 높임을 받는 환호성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왕, 지도자, 메시아 되라 할 때엔 거절하시다가 갑자기 변심하신 것인가? ②호산나는 히브리어 방언 아람어로 명령형입니다. 호산나는 결국 영광스런 찬송이러기보다 주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소리인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주 되심을 입증시키신 것입니다. ③주인의 허락 없이 나귀를 끌어오라 하신 것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분은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④그 주님이 내게 시간 좀 바쳐라, 재능을 바쳐라, 물질·생명을 바쳐라 하시면 누가 핑계하고 핑계를 요구하며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10년 서리집사, 교구일꾼, 섬김위원으로 임명받으시는 여러분을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 내어놓고 기쁘게 헌신해야 합니다. ⑤우리 모두는 복음에 빛난 자들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눅17:10절) 오늘 무엇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얻기보다 감사하며 바치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 II. 왜 하필 나귀일까요?

①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9:9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의 사명 갖고 오셨습니다. 마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마21:4절). ②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약자에게 굽히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③나귀는 왕의 상징입니다. 노새를 타는 것은 왕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④나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계6: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런 승리의자이심을 나귀를 타심으로 계시 하셨습니다. ⑤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사5:9-1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⑥나귀를 다신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사명자, 겸손한 자, 왕의 보좌에 앉을 자, 책임을 다한 최후 승리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택함 받고 임명받은 모든 이들은 겸손, 승리, 평화의 사람이 되어 왕 되신 주님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III.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①새끼 나귀들에 옷을 깔고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주님의 낮아지심보다는 영광스럽게 보았을 것입니다. ②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 맞으러 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종려나무는 존경, 화일, 찬송을 상징합니다(레23:40절, 겔41:26절, 계7:9절). ③존경하는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④약자로 하거나 기쁨이 없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⑤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⑥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대제사장이 없어졌습니다. ⑦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 역사 위해 어린양 되시어 예루살렘으로 한발자국씩 다가가시는 모습을 연상해보아야 합니다(사53:5절). 오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존경, 기쁨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 맺는 말

오늘 주님이 주님의 것 쓰시겠다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든 것 내어놓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난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Joshua Cho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		Organist
Call to worship .....	Psalm 86:11-13 .....	Presider
Invocation .....		Presider
* Hymn .....	3(2)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	No.22 .....	Congregation
* Doxology .....	1(1)	Congregation
Prayer .....		Elder Young Jun Kim
Hymn .....	115(115)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Exodus 1:1-22 .....	Presider
Member's 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634(7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acher
Anthem .....	On a night of wonder .....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		Congregation
Sermon .....	God's Unstoppable Promise .....	Rev. Joshua Cho
* Hymn .....	382(432)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		Congregation

### God's Unstoppable Promise

Exodus 1:1-22

#### Summary of the sermon

Anyone who has lived long enough can attest that this world is a cold, harsh place. The weak are exploited. Workers are corrupt. Even your best friend stabs you in the back. All people experience this, but followers of Jesus especially experience it because Satan and the world oppose God's people. Since God is faithful to keep His covenant promise, we must wait patiently in the face of this ruthless world.

First, God keeps His promise, even as the world ignores Him. The new king "did not know about Joseph" (v. 8). He ignored God's work in the past. He did not see Israelites' multiplication as a blessing (Gen 12:1-3), but a threat. But God continued to bless anyway (v. 7). The fact that God doesn't need anyone to work should strike reverent fear in our hearts. Next, God keeps His promise, even as the world schemes against us. The king tried to deal "shrewdly" by forcing them into slavery, and instructing the midwives to kill the male newborns. But each time, the Israelites became even more fruitful. Even as everyone seems to be moving ahead with their own plans, we can calmly rest in God's plans. Finally, God keeps His promise, even as the world uses its power. When Egypt saw that the Israelites only increased more, they worked them "ruthlessly." And when Pharaoh's instruction to the midwives didn't work, he commanded his people to throw every male newborn into the Nile. But as we will see in the next chapter, that only gave rise to Moses!

No matter what Pharaoh did, God's purpose could not be thwarted. As Israel cried out, God had a plan to send a deliverer named Moses. 2000 years later, God sent another deliverer named Jesus into this cold, dark world. And a different king named Herod tried to kill him along with all the newborns. But no matter what he did, God's purpose could not be thwarted. Jesus came to endure a ruthless death on a cross so that all who trust in him might be forgiven and receive strength to wait for his second coming.

#### Announcement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Please join one of our English Bible classes after fellowship to get plugged into our community. Sr Deaconess Kim, Myung Ok has invited our ministry to her home this Saturday for a Christmas gathering at 7pm. Directions are available in the back of the room. As an added option, you may bring a gift valued at 5-10,000W to play our "secret Santa" gift-exchang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 찬 양 예 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김대호 장로
III	오후 2시	정수길 목사	노문환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 시 54:1-2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3(2) .....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3부(십계명) ... 다 합 께  
 2부: 117(구주강림3)

오후 5시

· 인도, 설교: 이종윤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시 147:11 .....	인 도 자
찬 송	..... 23(23).....	다 합 께
기 도	.....	한상준 집사
찬 송	.....280(338) .....	다 합 께
성 경	..... 롬 1:28-3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합당치 못한 일" ...	설 교 은
특별찬양	.....	말 은 이
* 찬 송	..... 273(331).....	다 합 께
* 축 도	.....	다 합 께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105(105) ...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마 1:18-25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헌 금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설 교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임명식 ..... 당 회 장  
 설 교 Sermon ..... "요셉과 마리아처럼" ... 이종윤 목사  
 (Like Joseph & Mary)  
 \* 찬 송 Hymn ..... 120(120) ...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입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수 요 예 배

-학습·세례식-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이종윤 목사

기 도	..... I부: 노문환 장로, II부: 김광신 장로
성 경	.....시 135:1-21..... 인 도 자
학습·세례식	..... 집 레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 설 교 자

##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한현숙·홍혜란

설 교 ..... 이종윤, 정수길 목사

##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

설 교 ..... 박종민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음악감독: 이 영 조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만대의 주	Dale Peterson	김정희	강민정	백송희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소서	Steve Kupferschmid	고성진	김윤지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주께 영광	G. F. Handel	류충기	김현정	김복희	
찬양예배	베들레헨	빛나는 별	Fred B. Holton	김정훈	오신옥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On a night of wonder	Jay althouse	김문영	차주연	김수정	
수요 I부	흐 산 나	주 찬양해	이태희	서희숙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영광스런 그 이름	W. A. Mozart	백경화	이순제	서유진	

<현금송>

I부	초 등 부	오 베들레헨 작은 골	L. H. Redner	강다희	홍혜란
II부	그라이스헨드엔	기쁘다 구주 오셨네	Valeric W. Stephenson	송재원	
III부	이편관현악단	오 베들레헨 작은 골	L. H. Redner	임법창	임아름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친금업	3교구	한나	구연복	최고은	11교구	대학부	본인	전세민		초등부	박이신/임성웅
정정혜	15교구	마리아	이상은	민불	1-16	대학부	이소연	심현준	교육1국	영아부	본인
박기홍	7교구	영어예배부	유윤상	진제욱	15교구	중등부	박이신/임성웅	천수빈		영아부	김현영

앞면에서 계속

6.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호실: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7. 학습세례식 / 12월 학습·세례식이 12월16일(수) 수요 1, 2부 예배 시 있습니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매주 1·II 부 예배 후 602호에서, 세례 및 유아세례를 위한 교육은 매주 1·II 부 예배 후 609호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12월 15일(화) 오후 7시 602호에서 있습니다.
8. 주중 심방 / · 14(월): 13-25 · 15일(화): 13-26 · 17일(목): 13-24 · 18일(금): 3-19 13-28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이비인후과(안인호) 치과(이진구)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950-5597

###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초대합니다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에배에 우리교회 성도들의 기도 참여와 우리 목사님의 fighting을 위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시: 12월14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교회 본당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십시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